

월간 실적보고

2018.04

Summary of 2018 Apr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-3.9%** 성장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2.8% YoY** 증가

- 패키지 **14.3%** / 티켓 **-10.8% YOY** 증가

(**13.1**만명 / **8.6**만명)

3.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(YoY)

- 중국 **+77.2%** 일본 **+21.0%** 동남아 **+1.1%** 유럽 **0%**

- 남태 **-1.8%** 미주 **-13.2%**

4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-3.9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2.8%, 송객인원 21.7만명

패키지 인원 성장률 14.3%, 13.1만명.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. 2018년 2월 이후성장률 지속 상승 중. (18년 2월 -8% → 3월 +10% → 4월 +14%)

티켓 인원 성장률 -10.8%, 8.6만명. 2017년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7년 4월 실적 (YoY 44%)에 대한 역기저 부담.

비수기인 2분기의 시작으로 개별여행 (F.I.T) 성격인 티켓과 단품(입장권, 교통 Pass 등)은 성장성이 둔화 반면, 패키지는 2월을 저점으로 반등 지속.

4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8	131,264	86,596	217,860
2017	114,850	97,101	211,951
YOY	14.3%	-10.8%	2.8%

패키지 YoY : 2018년 2월 -8.0% → 2018년 3월 10.5% → 2018년 4월 14.3%

티켓 YoY : 2018년 2월 -3.6% → 2018년 3월 6.1% → 2018년 4월 -10.8%

총송객 YoY : 2018년 2월 -6.2% → 2018년 3월 8.8% → 2018년 4월 2.8%

지역별 성장 (YoY)

중국 +77.2% 일본 +21.0% 동남아 +1.1% 유럽 0% 남태평양 -1.8% 미주 -13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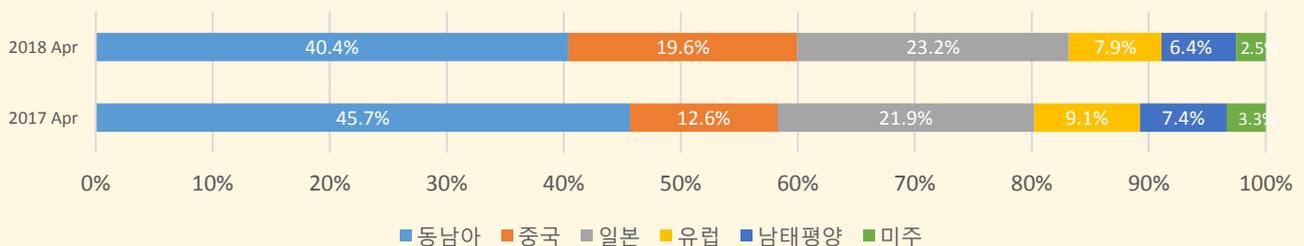
중국 +77.2%, 13개월 만의 플러스 성장. 최근 1년간 THAAD 관련 마찰로 인한 역성장. 2018년 4월부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높은 두 자릿수 성장 시작.

일본 +21.0%, 중국 제외하면 최고 성장. 최근 13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 지속. (13개월 평균 31% 성장) 동남아 +1.1%, 유럽 0%, 전년과 동일수준(Flat). 역기저 (각각 46%, 59% YoY)로 인한 부담.

남태평양 -1.8% 미주 -13.2%, 지난 달과 동일수준으로 장거리 중 유럽에 비해 회복 속도 다소 느림.

전반적으로 역기저의 부담이 있었으나, 근거리 지역이 성장 주도하며 지난 달 대비 성장성 증가. 18년 2월 장거리 지역 합산 -14% YoY 였으나 4월은 -3% YoY. 장거리 지역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 중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8년 5월	18년 6월	18년 7월
예약률	17.6	8.9	12.0

* 2018.04.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/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비교 (Month to date)

18년 5월, 6월은 한달전에 발표한 예약률 보다 증가. 예약률은 해당월이 가까워 질 수록 낮아지는 경향. 하지만,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이후 예약률은 여행 출발 시점 가까워 질 수록 점차 높아지는 상황. 2분기는 비수기임에도 여행수요의 회복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. 남은 2분기도 근거리 지역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며 예약률이 점증 가능할 것. 특히,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이 4월 이후 본격 성장. 장거리 전 지역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 지속.

18년 7월은 성수기를 두 자릿수 예약률로 시작. 전반적인 성장성이 좋은 근거리와 부진에서 회복하는 장거리의 빠른 회복 기대감.